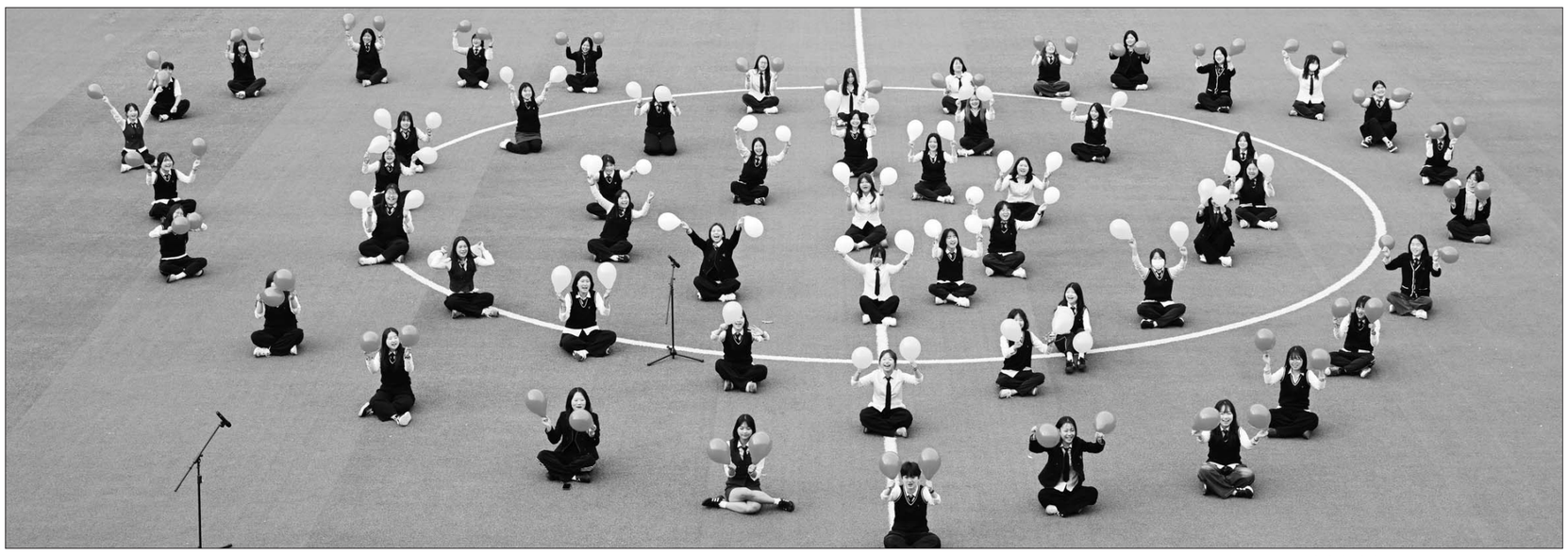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광주 남구 설월여고에서 고3 수험생들의 수능 대박을 위한 후배들의 플래시몹이 진행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후배들 응원 힘 얻어…떨리지만 최선 다할 것”

2026학년도 수능 수험표 배부·예비소집 현장

수험생들 긴장·결연함 가득…교사·학부모도 한마음
시험장 인파·차량 몰려 북적…유의사항 꼼꼼히 확인

“선생님과 후배들이 보내준 응원 덕분에 힘이 납니다. 수능 대박치고 올게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광주 지역 일선 학교에는 긴장감 속에서도 뜨거운 응원 열기로 가득했다.

이날 광주 남구 방림동에 위치한 설월여자고등학교.

수능을 하루 앞둔 교실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담임교사의 호명에 따라 학생들이 차례로 교탁 앞으로 나가 수험표를 받았다. 수험표를 받아든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번갈아 보며 손끝으로 매만졌다. 시험 과목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에서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다.

수험표를 나눠주는 교사들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무거웠던 교실의 공기는 곧 운동장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에 풀어졌다. 교복을 입은 1·2학년 후배 수십 명이 운동장에서 풍선을 흔들며 ‘수능 대박’을 외치는 응원 공연이 시작된 것이다.

수험생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후배들의 공연을 촬영하거나 박수를 보내며 잠시나마 미소를 지었다. 노래를 따라부르기도 했다. 10여 분간 이어진 공연이 끝나자 수험생들은 감사의 인사를, 후배들은 기운을 북돋는 격려의 박수를 주고받았다.

이후 수백 명의 후배들이 일렬로 도열해 선배들을 학교 정문까지 배웅했다. 왕관을 쓴 수험생들이 응원 문구가 적힌 길을 따라 걸어가자 환호성이 터졌다. 또 제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수험생들을 지도했던 교사들이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후배들의 응원에 긴장감이 가득했던 수험생들의 얼굴은 어느새 웃음으로 바뀌었다.

수험생들은 그간 자신을 지도해주고 이끌어준 교사들과 포옹하거나 악수를 하며 발걸음을 옮겼고, 일부 수험생은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배웅에 나선 후배들은 선배들에게 감정이 이입된 듯 사뭇 진지했다.

선배들을 바라보는 후배들은 이제 수능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듯했다.

설월여고 3학년 박서연양은 “수험표를 전달받으니 마지막 시험이라는 게 실감이 난다. 예민한 시기여서 가족, 선생님, 친구들과 부딪히기도 했는데 미안하다”며 “모두의 응원에 기운을 얻어가서 꼭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고 오겠다”고 다짐했다.

5년째 고3 진학지도를 맡아온 교사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박영덕 교사는 “해마다 다른 느낌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드는 시간이기도 하다”며 “수능이 하루 남은 시점에서 긴장이 많이 될 텐데 학생들이 지금까지 준비한 대로 잘 마무리하고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비소집일인 이날 고사장을 찾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모습에서도 긴장감이 묻어 나왔다.

서구 광덕고는 자신의 시험장을 확인하기 위한 수험생들의 발길음이 이어졌고, 부모와 함께 차량을 이용해 학교를 찾은 수험생들로 크게 북적였다.

수험생들은 손에 쥔 수험표를 들고 배치표를 확인하며 시험장 위치를 꼼꼼히 살폈다. 윤용성 기자 yo1404@

‘3명 사망·16명 중상’ 선주, 항소심도 징역 2년

법원 “미흡한 사고 대처로 심각한 결과” 항소 기각

전남 진도 해상에서 3명의 사망자와 16명의 중상자를 낸 60대 선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 배은창 재판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해양관리법위반,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선주 A씨(60)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3시13분 진도 해상에서 9.77t급 낚시어선 전복사고를 일으켜 배에 탑승해 있던 낚시객 등 3명이 사망하고 16명의 중상을 초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해상에는 최대 풍속이 초속 6m에 이르는 돌풍성 바람이 불고 있었다. A씨의 선박은 너울성 파도에 해수가 유입되면서 엔진과 발전기가 침수됐다.

하지만 A씨는 별도의 조난통보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 구명뗏목을 펼치지도 않고 주변 선박의 구조만 기다렸다.

결국 배는 전복됐고, 탑승객 21명이 바다에 빠졌다. 승선원 중 3명은 끝내 숨졌고, 구조된 16명도 중상을 입었다.

특히 A씨는 60대 1명을 뺀 승선자 명부를 경찰서에 제출해 해경의 구조 작업에 혼선을 일으켰다.

또 해당 선박에 있던 경유 1414ℓ가 해양으로 유출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선박 정비 소홀, 기관실 침수, 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은 어선법 위반으로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결정됐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영진 기자 looks@

‘광주 교육의 현장 감동 기록 사진전’ 12일 오후 광주도시철도 상무역에서 열린 ‘광주 교육의 현장 감동의 기록 사진전’을 찾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시민들이 김진수 한국사진기자협회 광주·전남사진기자회장의 안내로 전시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추가 대리비 안 줘”…손님 감금 대리기사 처벌

대리운전 기사가 추가 요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님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다시 출발지로 향할 경우 감금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재판장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31일 오후 9시 26분 광주 서구 한 주차장에서 만난 피해자 B씨(67)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는 과정에서, B씨를 2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목적지를 향하던 과정에서 B씨의 요구로 C중학교를 경유한 것에 대해 추가 요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출발 지점까지 14㎞ 구간을 빠른 속도로 회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감금하게 된 경위와 방법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산구 ‘공영주차장 맞춤형 요금제’ 효과 톡톡

1000원 주차장·야간 개방·장기권 할인…이용률·수익 쑥쑥

광산구가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맞춤형 공영주차장 요금제’가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2시간 1000원에 이용 가능한 ‘천원주차장’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무료 개방하는 ‘야간 개방’ △6개월 이상 장기권 선납 시 요금을 할인해주는 ‘캠핑카 할인제’ 등 3가지 맞춤형 요금제를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천원주차장은 △광주송정역 뒤 △무진로 △우산동행정복지센터 앞 △광산문화예술회관 옆 △운남동 △수완동행정복지센터 옆 △수완문화체육센터 지하 △하남3지구 주차타워 1·2 등 총 9개소다.

정책 시행 전후로 월 이용 대수는 3만 9555대에서 4만5263대로 14% 증가했다.

특히 광주송정역 뒤 공영주차장은 2시간 요금을 16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춘 뒤 이용률이 27% 상승했다. 수익 감소 우려와 달리 전체 공영주차장 수입은 지난해 대비 26~29% 늘어, 합리적 요금 정책이 이용 활성화와 수익 개선을 동시에 이끌었다는 평가다.

야간 개방 주차장 이용률도 꾸준히 상승했다. 야간 주차 이용량은 월 7000대에서 9000대로 늘었고, 특히 3시간 미만 단기 이용은 △우산동행정복지센터 앞(182%) △하남3지구 주차타워1(180%)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캠핑카 장기권 할인제 접수율은 시행 전보다 평균 45% 증가, 장기 주차로 인한 안전 문제와 도시 미관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

정책 시행 이후 불법주정차 문제도 크게 완화됐다.

고정식·이동식 단속카메라와 수기 단속을 포함한 불법주정차 적발·민원 건수는 2022년 21만건에서 올해 10월 기준 15만건으로 감소했다. 광산구는 맞춤형 주차 정책이 단순한 편의 정책을 넘어 교통질서 개선에도 실질적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

남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자치구 최초…하루 11차례 운행

광주 남구가 자치구 최초로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남구는 12일 “지난 10일부터 학교와 도서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는 모든 세대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 준비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달 남구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남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심의·의결,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운영 중인 무료 셔틀버스는 2대다. 무료 셔틀버스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11차례 운행되며, 배차 간격은 25~55분이다. 윤용성 기자

오늘의 날씨

해뜸 07:05 해짐 17:28 / 달뜸 00:15 달짐 13:55

미세먼지 확인하세요!

광주		
전남		
광주		6~18
목포		8~17
여수		10~18
순천		7~20
구례		5~19
해남		6~18
완도		8~19
흑산도		13~17
고흥		7~20
진도		8~17

목포	밀물(고)	08:08 / 21:03
	썰물(저)	01:26 / 13:28
여수	밀물(고)	03:45 / 16:14
	썰물(저)	09:26 / 23:03

누범기간에 또 절도

만년필 ○…누범 기간 임에도 잇따라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재판장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월을 선고.

A씨는 지난 1월29일 광주 서구 한 주택가에서 마트 업주 B씨가 판매대에 진열한 식혜, 우유 등 4만원어치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

또 4월29일 광주 서구 한 편의점에서 이어폰, 속옷 등 2만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해 여러 번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2022년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또 다른 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계속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